

北韓의 社會變化와 主體思想

都 興 烈

- | | |
|----------------------|-----------------------|
| I. 문제제기 | IV. 이데올로기적 힘의 원천 |
| II. 김일성사상 형성의 배경적 요소 | V. 3대혁명소조운동과 후계체제의 성격 |
| III. 주체사상의 정치사회적 기능 | VI. 전망 및 남은 문제 |

I. 문제제기

지난 40년간 북한사회는 오직 김일성사상의 틀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공산화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하여 전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혁이 급속히 진척되었다. 북한사회의 공산화작업에 저해가 된다고 판정을 받은 지주, 자산가 등은 모두 추방 또는 숙청되어 제거된다. 그리고 60, 70년대에서는 “주체사상”이란 이름 밑에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체제가 강화된다. 김일성체제에 대한 충성 이외의 의견은 모두 봉쇄되었으며, 전사회구성원은 단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모두 재교육되었다. 북한사회는 일찌기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김일성을 경배하고 그를 곧 생명으로 알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장 극단적인 독재의 진행에 속하는 사회가 되었다. 드디어 8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권력세습을 합리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따라서 공식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더 높고 그의 역할은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 북한사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최상위의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북한사회에 있어서 김일

성의 주체사상은 “정치발전의 목표와 정치활동지침을 결정해 주는 최고이념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행위준칙을 결정해 주는 최고이념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행위준칙을 결정해 주는 도덕규범이고, 행위의 선악을 가려주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물론 공산주의정권과 비공산주의정권을 구별하는 기준, 즉 공산주의정권을 특정지우는 결정적 지표는 집권당 및 정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데 있다.¹⁾ 북한의 경우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킨 이래 한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들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식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위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에 개최된 노동당 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서 명문화시켰다. 그리고 1980년에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천명함으로써 당의 공식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²⁾

이와 같은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에 의해 소위 『김일성주의』로까지 정식화되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의미한다. 김일성이 자신의 사상체제를 ‘주의’의 차원으로 격상시켰다는 것은 곧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 내지는 상위의 이데올로기로 공식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 주체노선을 처음 천명한 1955년부터 5차당대회 이전까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순수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은 ‘실천이데

1) Robert C. Tucker,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World Politics*, Vol. XIX, No. 2 (Jan. 1967), p. 238.

2) 崔完奎, “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87), pp. 14~5.

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양 이데올로기간의 위상변화는 특이한 현상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공산주의사회보다 이데올로기의 비중과 역할이 강조된다. 그 때문에 이데올로기로의 주체사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사회의 특이성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김일성사상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체사상의 정치, 사회적 기능과 주체사상이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특히 주목한다. 왜냐하면 북한사회 구조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신화적 위치와 이념적 획일성 저변에 숨어 있는 강력한 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주체사상이나 주체사상 형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혁명전통』(김일성 항일 빨치산 투쟁전설)의 진위여부와 『주체사상』이 가진 힘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혁명전통』이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체'의 개념과 주체사상은 추상적인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히 파고 들어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김일성사상 형성의 배경적 요소

김일성사상은 우선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반정치이데올로기와는 상이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사상은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의지의 결집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자기정당화의 도구로 창출된 것이다. 마르크스изм은 19세기의 초기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그리고 레닌이즘은 19세기 말의 제정러시아의 전체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모두 명백한 투쟁대상과 개혁대상체제를 가지고 나타난 이데올로기

들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사상은 소련점령군이 만들어 놓은 공산체제를 승계받으면서 그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김일성사상의 근간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부르조아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저항, 그리고 부르조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적 지배로 이어져 나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북한실정을 보면 그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탕이 없었다. 미워할 부르조아도 없었고 프롤레타리아계급도 거의 없는 상태였었다. 노동자를 ‘착취’ 하던 몇 개의 대기업주와 소작인을 ‘착취’ 하던 대지주들은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이미 소련군에 의해 추방당한 다음이었다. 북한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다같이 가난한 자작농들과 소작인 그리고 많지 않은 노동자, 광부, 어부들이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할 상황도 저항할 대상도 아니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김일성사상은 저항의지를 사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적을 밖에서부터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김일성 지배체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남한과 미국을 제국의 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즉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사회로 전제하고 남한의 체제를 부르조아 착취계도로 가정하고 남한 내의 일반국민을 북한인민의 연장으로 규정하여 불가분의 관계로 전제하여야만 비로소 제국투쟁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가 설 자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김일성사상에는 『남조선혁명』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 굳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³⁾

그리고 김일성사상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외에도 이른바 민족주의 요소를 첨가하고 있다.⁴⁾ 민족주의는 마르크시즘의 국제주의와 모순이 되는데도 이를 굳이 ‘창조적 적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까지 도입하지 않

3) 李相禹,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대남관계”, 金俊燦,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法文社, 1985), pp. 295~6.

4) 朴漢植,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梁性喆·朴漢植 편저, 「북한기행」(한울, 1985), p. 118, 125.

을 수 없었던 것도 북한과 남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기 위한 필요성과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당위때문이었다고 본다. 남한사회도 토지개혁 이후 이렇다 할 프롤레타리아제급의 적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과 남한정부를 연결시켜 “미국자본주의가 남한정부라는 괴뢰정권을 앞세워 제국착취를 한다”는 허구를 세워야 그나마도 ‘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저항의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김일성사상형성의 배경에 관한 논의는 그 허구성과 내용자체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이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함) 그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으며 사회변동과는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하나의 기초로서 관심을 가져 본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가 사회변동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구조와 의식구조까지도 포함된다.

Ⅲ. 주체사상의 정치사회적 기능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비록 그것이 현대 정치이론으로 보면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前時代的인 정치사상이지만 북한정권의 유지강화와 북한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은 포괄적이고 포섭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겐 체제정통성의 확보와 권력기반구축 기능을 비롯하여 사회적 일체감 조성기능, 대중동원 기능, 의식개조 기능, 그리고 권력세습화의 합리화 기능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1. 체제정통성의 확보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김일성 일인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사실상 어떠한 정치체제도 그 체제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는 경우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미 본 바와 같

이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은 김일성이나 북한 자체의 무장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후 소련의 소비에트화 정책에 의해 밖에서부터 이식(강요)된 사회주의혁명의 결과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할 스탈린역할의 대행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면에서 김일성은 모택동이나 티토와 같이 처음부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 이에 대한 그의 컴플렉스는 대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김일성체제가 출범과정에서 떠맡지 않을 수 없었던 정통성의 시비문제를 일차적으로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이 그후 주체사상의 기원을 1930 년대의 항일무장투쟁과 접합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통성 확보와 그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처음 주체사상이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로동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그러나 그후 김일성은 로동당창건 40 주년에 즈음한 연설을 통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서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으로 된 것은 1926년 「E, C」(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었다. ……「E, C」가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시초가 1955년이 아니라 1930 년대의 항일무장투쟁기였음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⁶⁾

그러나 사실상 북한에서 ‘주체’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전후 북구 건설시기(1954~1956)에 김일성이 로동당내 반대파들의 도전으로 말미암

5)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로선의 생활력』(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5), p. 44; 그러나 김일성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에서는 김일성이 1930년 6월 카툰에서 진행된 共靑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원리를 처음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음.

6) 「로동신문」(1975. 10. 11 자) 참조.

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로동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해 나가는 데서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북한이 '주체'를 내세운 근본목적은 『당내 종파분자』에 대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⁷⁾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자신의 항일투쟁경력을 신격화 내지 미화시키고 이 투쟁의 근원을 주체사상에서 찾음으로써 정권탄생 과정에서 그가 가진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⁸⁾ 북한권력의 핵심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로동당은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런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실도 결국은 김일성체제의 정통성의 근원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고 김일성의 '주체적'인 항일투쟁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때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정통성의 근거가 이와 같이 조작된 김일성의 前歷(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투쟁전력에 대한 신화(神話)가 역사적 자료에 의해 규명되는 날, 주체사상이 가진 막강한 힘은 그 위력을 상실하고 마는 결말을 가져오게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일체감 조성

주체사상은 북한사회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정체의식의 支柱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체사상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실상 북한은 '주체'를 통하여 이같은 적극적인 민족주의 감정을 표방하여 왔다.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지 모국에 대한 적대감에 정치의식

7) 許東燦, 「주체사상의 정체」(국토통일원, 1987); 「북한개요」(국토통일원, 1987) p. 16 등에서 실증적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하고 있음.

8)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논문으로서는 許東燦, "김일성의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판", (경남대 국문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87~1, 1987)을 들 수 있음.

의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도 그 예외는 아니며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민족주의는 항일투쟁정신에 입각한 반일사상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아가 주체사상에 바탕한 민족주의는 일본이나 혹은 미국을 적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세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을 넘어서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어 왔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인류문명은 한반도에서 기원되었으며 한민족은 모든 압제받는 인민들을 제국주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내용으로 역사를 재기술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주체사상은 이처럼 대중의 반일감정과 김일성의 혁명적인 항일투쟁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자기들만이 한반도에서 진실한 민족주의자라는 과장된 자부심을 갖도록 조작하여 왔다. 비록 이와 같은 과장된 자부심이 세뇌공작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투영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간의 일체감을 물론 사회성원과 체제간의 일체감을 조성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3. 대중동원

주체사상은 사회 각분야에 걸친 대중동원을 극대화하는데서 그 힘을 철저히 발휘하고 있다. 동원이란 행동단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집단행동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사적·민간적 목적으로부터 공적·군사적 목적으로 자원의 통제력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표방되기 시작한 것과 사회동원이 본격화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 사회동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킨리마운동은 1958년부터 추진되었다.

북한에서는 대중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방법’이나 ‘물질적 방법’보다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혁명

9) 박한식, 앞의 논문, pp.124~5.

10)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Proces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pp.388~390.

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곧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을때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대중동원의 한 방식으로써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 등과 같은 군중노선(mass line)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혁명적 군중노선을 가리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 사업과 인민적 사업작품”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대중동원의 대표적인 형태는 쉼터마운동을 비롯하여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제, 3대혁명운동(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4대군사노선,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대중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남한에 대한 인식구조

주체사상은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구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고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더 한층 견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정치학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주체사상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남한”이며 미국은 남한을 퇴폐사회로 오염시켰으며, 남한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케 함으로써 ‘조국의 남반부’를 무능력화시켰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북한사람들은 남한정부와 그 정치제도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붕괴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학자는 남한정부가 발표한 수량적인 경제발전 지표를 대중의 실질생활의 여건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이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외국의 제국주의 자본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배척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배층은 남한의 정치체제가 정당성이 결여되어 필시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믿고, 고조되는 투쟁의 원인을 빈부간의 격차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람들은 한국사회 내에 소요가 일어나 정치체제가 붕괴하여 사회주의사상과 북한이 제안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체제로 대체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¹¹⁾ 이상과 같은 북한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왜곡된 의식구조는 바로 주체사상에 근거한 기계적 학습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권력세습의 합리화

주체사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세습적 권력승계를 합리화시키는 기능까지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 권력의 부자세습은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① 그에게 절대 충성하고, ② 그의 사상(주체사상)에 정통하고, ③ 새 세대의 인물이고, ④ 고매한 덕성을 가졌으며, 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들고 있다.¹²⁾ 그런데 바로 김일성의 장자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으며, 아버지의 고매한 덕성과 지도력을 계승했으며, 문화, 사상이론과 정치면에서 많은 업적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친애하는 지도자’로 항상 일컬어지는 김정일은 주체철학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주체철학을 발전, 완성시켜야 하는 인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자세습체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혁명과업은 한 세대에서 완결될 수 없는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업인데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정통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킬

11) 박한식, 앞의 논문, pp. 133~4.

12) 高秉喆, “혁명 2대”, 梁性喆의 편저, 앞의 책, pp. 62~3.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혁명과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습적인 권력승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의 家門 자체를 혁명적 역사의 聖地로 신성화시키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주체사상의 창조자인 김일성은 단순한 정치지도자 이상의 위치에 있다. 그는 심지어 한 국가의 상징 및 분신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신의 의지의 화신으로서 절대자가 이미 접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지도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의 가문은 애초부터 다른 평범한 가문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끈질기게 인식시켜 왔던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일을 또 다른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그의 자질을 입증하고, 나아가 그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가문의 신비와 김정일 자신의 역량울 조작하려는 선전선동이 한창이라고 한다.¹³⁾

이와 같이 '주체'는 북한의 사회변동을 방항지우고 김일성수령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의식을 통제하는 작용에 끝나지 않고 급기야 권력세습을 합리화시키는 데까지 이용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정치적 통합과 지도층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북한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주체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전개가 냉전시대의 정치에 의해 주로 형성된 특수한 국내외 상황에 따라 더 유리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3) 박한식, 앞의 논문, pp.130~1.

IV. 이데올로기적 힘의 원천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상적 힘의 원천은 크게보아 ① 전세기적 카리스마의 창출, ② 동물적 강화(조건반사적 학습)방법, ③ 집단주의적 통제방식이 그 고리라고 하겠다.

1. 신화창조와 역사날조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왜 김일성 신화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일성을 위한 신화의 제조는 그 목적이 단순히 지배수단을 얻기 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첫번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모든 신화와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김일성 신화의 날조는 반대 언론이나 비판이 일체 탄압되고 있는 특수한 조건 밑에서 최소한도의 실증성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집단적인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 『국경일』로 제정된 것도 이러한 논리의 귀결이었다. 김일성이 출생한 평양 서쪽 대동강변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만경대)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성지』로 설명되는 것도 신화의 논리가 된다. 여기에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도 당연히 나온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전체 인민들』이 행렬을 지어 이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만경대 참관 과정은 김일성 개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해서 까지도 『민족적 혁명가족』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화에 실증성을 부여하기 위해, 김일성의 아버지 金亨稷

이 교사로 있었다고 하는 봉화리 산속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金亨稷이 동지들을 규합하고 지도했다고 하면서 이 장소에 있는 조그만 약수터를 또한 성지로 지정하고 있는 사실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신화가 날조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인민들은 봉화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 샘물을 『성수』로서 집으로 퍼 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화날조는 모든 『혁명성지』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과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다. 김일성이 현지교시를 했다는 장소마다 『성역화』되고 또 그와 관련된 물건들이 『성물화』된다. 그가 앉았던 의자, 그가 차를 마셨던 찻잔 등이 모두 성물이 된다.

김일성이 어린이, 농민, 공장노동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는 그림들을 각종 전시장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은 특별한 존재이며, 모든 사람의 중심 아니면 위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메스게임이나 카드섹션에서 김일성만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수령문화』의 가장 특징적 요소가 되고 있다. 김일성은 아직 자신의 최대의 과제인 권력승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체의 나라』는 바야흐로 김일성 『수령의 나라』가 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일은 역사의 재편성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조선전사』의 발간은 종래까지의 역사관과는 다른 『주체사관』으로 전체가 재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33권을 편집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 17권이 이미 발간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학자들은 200명에 이르며 과거 10년동안 이 사업에 종사해 왔다고 한다. 『조선전사』를 발간하게 된 진정한 의도는 북한이라는 국가와 세계의 모든 피압박 민족들의 구세주로서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시된다.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역사서술은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대체로 현재의 권력을 합리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다. 북한의 경우, 58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현대사』의 기술방법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¹⁴⁾ 『조선민족 해방투쟁사』(조선역사편찬위, 1948), 『조선민족 해방투쟁사』(이나영, 1958) 및 『조선근대 혁명운동사』(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가 그 변화의 이정표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공통점은 3·1 운동에서 민족주의운동은 일단 종식되고 20년대부터는 공산주의 운동이 역사를 주도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던 것이 1966년 10월, 당 4기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당내 反金세력이 제거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가 후퇴하고 그 대신 역사학계에서는 김일성의 저작 및 혁명업적 뿐만 아니라 가족상황에까지 연구가 확대되어 김일성개인에 대한 연구가 바로 민족해방운동사 즉, 공산주의적 일반사로 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金漢吉의 저서 『현대조선사』(평양 외국문출판사, 1979)가 이러한 역사서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 책의 제2장이 바로 『주체사관』의 원형이 되는 것인데, 『타락한 민족주의운동의 구세주』로서 등장하는 것이 김일성과 그의 아버지 金亨稷으로 서술되고 있다. 김형직이 민족주의 운동을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서술한 다음,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이 만주 樺甸縣에 있는 華成義塾의 학생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다고 하고, 이것을 “조선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산주의 등장과 조선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다”고 함으로써 김일성에 의한 새로운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즉,

“.....김일성 주석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이론, 조선의 역사와 현실을 독자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조선인민이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운동도 기회주의, 분파분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혁명적 방법으로 전철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14) 黃性模, “북으로부터의 도전”, 「분단사회의 평가적 인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p.189~213.

15) 黃性模, 위의 논문, pp.182~5.

그리하여 김일성의 지도에 의해서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되어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를 거쳐서 중국적인 위대한 승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오로지 金漢吉의 책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자료에서도 이것을 입증할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조선전사』는 김한길의 역사서술방법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역사날조를 통해서 김일성 일인지배의 가장 뚜렷한 결과는 김일성이 現神人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론적 기초가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새삼 여기서 운운할 필요가 없다. 즉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서 만들어 낸 『최고의 사상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은 『주체적 혁명관』, 『주체적 역사』, 『주체국가』 다시 말해서 『조선』 자체와 동일시된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2. 혁명교육의 방법

북한교육방법의 하나인 기계적 강화훈련방법은 복종심을 배양하고 주체사상의 구속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사회는 흔히 『병영사회』로 비유될 만큼 획일적 행동양식으로 충만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도 아니고 중상도 아니다. 모든 성인들이 직장에 나가고 돌아오는 것이 마치 군대의 움직임처럼 정확하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북한사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한 일률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은 오랜 통제와 명령속에서 습관화된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일상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이고 자기선택에 따른 일상적 움직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과 거주지 선택의 권리가 없다. 주민생활의 일사불란한 운동은 일방적 명령

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간기계의 무리가 된 것이 틀림없다.

김일성은 모든 주민이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계적 인간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지배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지식을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 교육이 김일성 자신의 영구지배를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장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혁명교육』을 그만큼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들이 성장하여 청년·장년이 되면 그만큼 큰 『혁명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만 젊은이들은 혁명적 당의 영도 밑에서 사회와 민족의 혁명에 헌신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이나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각오를 하게 하는 교육방법은 어떠한 것인가?¹⁶⁾

북한의 신생아는 생후 44일부터 77일 사이에 탁아소에 보내진다. 그리고 그들은 만 다섯살이 될 때까지 탁아소에 다녀야 한다. 대체로 어린이는 생후 1년 3개월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북한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말은 『수령님 고맙습니다』이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사람의 생활속에 내면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치원, 인민학교,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학교에 갈수록 경쟁을 통해서 능력향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북한의 인민학교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로 노래 속에서 말을 배우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춤이 따른다. 그러나 노래와 춤은 집단적 발성과 집단적 운동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후에 메스게임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행진(시위)을 위한 훈련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만 4세때부터 시작되는 김

16) 黃性模, 앞의 논문, pp. 194~8에서 참조하였음.

일성의 역사를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간단한 말로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어린이 교육방법(기계적 강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실마다 김일성의 지내온 모습이 그림으로 장식되어 김일성의 신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만경대에서 출생한 김일성의 그림을 비롯하여 여러 그림을 선생이 지적하면 그에 따라 배운 문장을 암송해서 대답하게 한다.

김일성 신화의 암송과 더불어 아이들이 암송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다. 그것은 『미제를 타도하자!』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항일 빨치산을 찬양하는 놀이에도 이어져서 어린이들을 전쟁놀이에 열 올리게 한다. 항일 빨치산의 찬양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에 가면 저녁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주로 『혁명전통』에 관한 장면들만 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싸움이 미덕이라는 정서교육이다. 어린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7시부터 11 시까지의 방송프로그램에서도 항일 빨치산 영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의 점령 밑에서 정권을 잡게 된 정치지도층이 이와 같이 항일 빨치산 활동만을 방영케 함으로써 이른바 『주체적』혁명을 해보지 못한 것을 심리적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말을 암송케 하는 교육방법은 인민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대학에까지 연장 실시되고 있다. 김일성의 연설이나 교시를 줄줄 외우는 일은 대학생의 능력의 표시로 인정된다. 그 뜻이 무엇이든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수령의 만수무강』을 소리높이 합창한다. 그것은 동시에 김일성의 지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기원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방법은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즉 방송을 통하여 거리에서, 광장에서, 주택가, 아파트단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와 보도등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사회교육의 현장이다. 직장, 기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확성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가정마다 수신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디오나 텔레

비전이 있지만, 그것도 『로동신문』이나 『민주조선』에 첨가해서 당이나 내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치교양』이라는 하나의 목적 밑에서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외국 소식이란 공식적인 것 이외에는 없다. 다만 남한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상황이나, 학생때도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대량 전달된다. 그러나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일체 없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하나의 태양 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대학졸업생들조차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수없이 외친 일은 있어도 왜 자본주의가 나쁘고 왜 제국주의가 없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전용어 그대로 암송할 수 있을 뿐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미국은 제국주의, 일본은 군국주의 등의 도식적 암송은 본질적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다.

북한의 사회교육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은 뭘니 뭘니 해도 직장조직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장이란 먹고 살기 위한 유일한 근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 매여 직장조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조직속에서 사는 방법은 부과된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다. 나아가서 그 과업수행이 자발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 비판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것은 조직원이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것은 또한 당의 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인간조정과 통제的基础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 마침내 모든 조직체는 『당중앙』의 결정을 하나의 법으로서 비판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당중앙』이란 金正日인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김일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은 김일성 일가의 지배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북한사회 전체가 김일성의 뜻에 따라 그의 『혁명전통』을 배우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학교’, 하나의 ‘병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V. 3대혁명소조운동과 후계체제의 성격

1970년대이후 북한에는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김일성이후 세대로까지 승계하려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그것은 바로 『3대혁명 소조운동』이며 이의 중심적 과제는 사상혁명이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1973년 2월,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대혁명』이란 슬로건이 표면화되면서 3대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전당적 과업으로 부과된 것이다.¹⁷⁾ 이 운동은 장차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전제 밑에서 김정일의 직접적 관장하에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 3대혁명 소조운동

〈3대혁명〉이라 함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등 세가지 혁명을 뜻하는데, 북한에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주민이 이를 기본행동원칙으로 삼고 있다.¹⁸⁾ 그리고 〈3대혁명〉 중에서도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시하며, 이를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상혁명』은 사회전체를 『혁명화』, 『노동제급화』하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동시에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과도기단계에 있어서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동제급의 혁명화』, 『농민의 노동제급화·혁명화』, 『인텔리의 혁명화·노동제급화』를 의미하고 있다.¹⁹⁾

17) 실제 그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75년 2월 당 5기 10차 전원회의에서부터라고 함.

18) 「북한헌법」 제11조, 제36조; 「사회주의노동법」 제9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로동당 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 10).

19)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제급화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 20~25.

이와 같은 <사상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노동당의 조직은 물론 정권기관, 노동단체, 교육·문화·보건기관 등 모든 조직이 동원, 활용되며, 조직을 통한 각종 학습과 문학·예술을 통한 『군중교양 개조사업』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3대혁명소조는 그 추진조직 주체로서 큰 사업소에 대해서는 50명 정도, 작은 사업소에는 10명 정도의 소조를 만들어 파견한다. 합동농장·학교·문화기관에도 소조가 파견된다. 73년도 당시만 해도 수만명의 소조원들이 각처에 파견되었으며 최근에는 군대에도 파견되고 있으며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명분은 사상개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노간부에 대한 사상을 검토하고 그 제거이유를 만들어 넘으로써 새로운 세대에 의한 권력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대혁명소조 활동은 당 중앙을 위한 친위대를 전체 조직속에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간부들은 보수주의·관료주의·기술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많은 노간부들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간부들의 숙청이 끝난 이후에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뒤따랐다. 이 운동에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운동에서 열성도를 인정받으면 간부로 기용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결국 젊은 대학졸업생들의 관심이 김정일에게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대혁명소조 활동의 결과 수만명의 간부가 교체되었다는 후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정을 당 기관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⁰⁾ “최근 년간 우리 중앙위원회는 당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일꾼들로 꾸리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것은 우리 당 발전에서 획기적인 사실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된

20) 「근로자」(1975. 4월호) 참조.

다.” 그런데 실제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이때부터 김정일을 『당중앙』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76년에 가서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공휴일로 정하며,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과 함께 전 주민의 축제일, 민족의 대제전으로 그 격식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3대혁명의 등장과 더불어 이른바 사회주의 전설을 총지휘하는 입장에 섰다. 그리고 그 방법도 종래와는 달랐다. 즉, 보다 강도 높은 경쟁운동의 형식이 채택되었다. 이른바 『속도전』이 그것이었다.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죽을 자유도 없다”,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해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전투적 구호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전당·전인민적 차원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운동』,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되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들은 종래의 『천리마운동』과는 다른 긴박성을 띤 극단적 경쟁운동이었으며 『피바다 돌격대』라는 독촉대까지 조직하여 도처에서 숨가쁜 주민동원이 전개되었다. 이는 극단적 勞力強化과정을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대한 것이다.

2. 세습체제의 계속혁명적 성격

이상과 더불어 북한의 후계체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김일성 수령체제의 계승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²¹⁾ 북한은 유일적 후계체제의 논리 전개와 정당성확보를 위하여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주체사상에 대하여』,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지도자론』 등을 발표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학습시켜 왔다.

이상과 같은 발표문을 통하여 김정일을 “김일성의 사상의지를 가장 충

21) 1980. 10. 당 6차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에 의하면 “로동당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최중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후계자임을 주장하였음.

실히 전수받은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탁월한 사상이론가로서의 이미지”로 부각시켜 왔으며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통치이념으로 정착시켰다.²²⁾

예컨대 『지도자론』에 의하면 혁명계승론, 세대교체론, 혈통계승론, 역사적 준비단계론, 김일성신화론 등을 제기하고 세습체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²³⁾

① 『혁명계승론』은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과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나가야 하고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세대교체론』은 반드시 새로운 세대에서 후계자가 나와야 하며, 특히 후계자는 영도자로서 품모를 갖춘 인물이면서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혈통계승론』에 의하면 후계자는 수령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라야 인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④ 『역사적 준비단계론』에 의하면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의 사상 및 이론과 영도예술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⑤ 『김일성신화론』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우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한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⁴⁾

또한 후계체제의 계속혁명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공식적 근거로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란 논문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²⁵⁾ 김일성자신의 사상이론적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논문은 김일성의 72회 생일을 앞두고 열린 『주체사상 연구토론회』에서 공개된 것이며 그 내용도 지금까지의 주체

22) 최근 김정일의 공산주의적 덕성과 지도력을 선전하고 있는 글은 「로동신문」(1986.2.9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주체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영명한 지도자”; 「로동신문」(1986.2.16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나가는 우리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등이 있음.

23) 국토통일원, 「김일성부자 세습체제의 정책방향」(1984), 6~7면.

24)鄭魯官, 「김정일 권력승계와 주체사상의 상관관계」, 「월간 정책연구」 제69호(1984.12), pp. 27~31.

25) 김일성 70회 생일 기념행사(1982.3.31)로 개최된 「전지역주체사상토론회」에서 김정일의 저작물로서 공식발표된 논문임;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로동당 출판사, 1982).

사상을 하나의 이론체제로 정리하고 그것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이론적으로 접합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그리고 지도원리 등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논문은 대외선전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김일성을 사상이론가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논문에 의하면 김정일이 이어받을 북한사회체제는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²⁶⁾ <표>에서 제시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후계체제의 계속혁명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된다.

<표>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의미 해석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내 용	해 석
1)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① 사상에서의 주체 ② 정치에서의 자주 ③ 경제에서 자립 ④ 국방에서 자위	*기본입장 고수 * " * " * "
2) 창조적 방법을 틀어 쥐어야 한다.	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②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기존방식 고수 *부분적 변화시사
3) 사상을 기준으로 틀어 쥐어야 한다.	① 사상개조 선행 ② 정치사업 선행	*기존방침 고수 * "

물론 김정일의 상기 논문 가운데서도 북한사회의 변동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내외적인 환경의 계속적 변화에 적응하여 “실정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⁷⁾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도방식과 대중조작 방법에 있

26) 이 논문이 비록 체제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 대중이 한나라의 주인 즉, 『주체』가 된다는 역사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역사의 주인, 즉 『주체』가 된다는 『원리』에는 변함이 없음. 이는 이 논문이 발표된 후 『혁명전통』의 보완 수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서 혁명 전적지의 재정비와 三池淵(백두산 부근)이 혁명전통 교양의 센터로 설정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27) 김정일, 앞의 책, pp. 60~1.

어서 부분적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즉,

① “자국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을 타산하여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술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²⁸⁾

③ “기성이론에 옳게 대하여야 한다”, “혁명과 전설사업을 지도하는 출발점은 기성이론의 명제나 공식이 아니라 산 현실이다…… 문제는 인민 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는가 않는가, 해당한 역사적 시기의 주객관적 조건에 맞는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고 주객관적 조건에 맞으면 기존의 명제나 공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들이 말하는 ‘주객관적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그들이 의미하는 ‘현실’이라든가, ‘주객관적 조건’이란, ‘혁명과 전설’, ‘유일적 혁명계승’ 등 북한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정치적 과제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해석이 바로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정에 맞는 방법’이란 표현이 지닌 의미 역시 김정일 세습화와 기존의 김일성사상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보강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기존체제 보완적 조치만이 기대될 수 있다. 실사 북한이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과시하고 현실적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정책적 필요에서 대외적으로 다소 개방적 조치(예컨대 ‘합영법’ 제정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확대 희망, 남북대화 재개 등)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까지 사상의식과 생활방식의 기본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28)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됨.

Ⅵ. 전망 및 남는 문제

이미 본 바와 같이 사실상 북한의 경우는 “주체사상”이란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행동지침으로, 정권의 정당화 근거로, 심지어 권력세습의 합리화 수단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이데올로기가 사회변화를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 그 자체가 사회변화의 원인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변화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조래케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이념은 역사적 과정에서 수없이 명멸한다. 이는 사회역사적 조건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음양이 교차되기도 하고 제3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사상과 사회변화, 주체사상과 북한사회변화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신에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북한을 ‘김일성의 나라’(land of Kim Il Sung)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자식에게 승계함으로써 그의 주체사상을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김일성의 의도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북한사회가 주체사상에 의해 일찌기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획일화되었고 사회성원 모두가 異稟을 가질 수 없도록 교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언제까지나 ‘김일성의 나라’로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측면이 앞으로의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사회변화의 動因이 이데올로기의 통제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位相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북한이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추구하기 위

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경우(지금도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짐), 그들의 이념적 순수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기술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초체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전은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견고성을 고려해 보면 다른 제3세계국가에서 기대했던 방법으로 이데올로기의 탈을 쉽게 벗어버릴 것으로는 전망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념대립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산업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시장을 모색하게 되고 궁극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하나의 세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가운데 어떤 나라든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번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생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미 산업화된 서방 국가들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주체』의 이념은 기술개발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신생국가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방산업세계와 더욱 광범한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북한이 『주체』를 위태롭게 함이 없이 어느 정도로 경제정책을 실용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²⁹⁾

세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의 열세가 문제된다. 양자간의 균형 유지에 지대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될 정도의 경제적 낙후가 예상될 때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김일성 이후의 주체사상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예측될 수 있

29) 박한식, 앞의 논문, p. 136.

을까? 적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주체사상'의 퇴색과 이때울로기 퇴조가 예상된다 하겠다. 물론 '대를 이은 혁명 완수'라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근본적 성격때문에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이 손쉽게 무너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일성이 사망하더라도 김일성주의는 상당기간 존속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의 열세가 내부 결속을 위한 새로운 상징적 지주를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이에 발맞추어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되 현실적응력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는 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김일성주의』의 변용으로서 『김정일사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주체사상의 아류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김일성사상의 부분적 재해석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실정에 맞는 방법"이라던가 분권화가 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보완하는 조치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자율화와 개인화는 체제적 규율의 범위안에서 부분적으로만 허용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체제보완적 조치로서의 이러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작은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이는 북한사회를 단세포적인 구조에서 복합적 구조로 점차 옮겨가게 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정치부문과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이 서로 분화되어 가고 남성문화와 여성문화가 분리되고 공장이나 기업체의 독립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러한 변화가 경제와 사회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가 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상적 투쟁의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실질적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혁명적 승리만이 아닌 인간적 욕구의 충족을 기대하게 될 것이며, 생활의 만족을 갈망하는 심리변화마저 예상된다.

인간의 본성이란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그 새롭게 생긴 욕구가 충족될 경우, 욕구의 수준은 계속해서

또다시 한 단계 높게 상향조정되며 그러한 욕구교차화과정은 무한대로 치솟는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본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 상승의 흐름을 적정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정책이 어느정도까지 성공할 것 인지가 앞으로의 사회변화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민요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상승하게 될 주민들의 욕구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정치의 효율은 격감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도력의 교체마저 예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폐쇄된 북한사회라고 하더라도 주체사상의 위상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보다 유연한 체제로의 사회변화가 도래하게 되지 않을까?